

일본 베이커리 상품포장 전시회 第7回 お菓子の ラッピン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본랩핑협회(ラッピング)가 주최하는 제과 관련 포장전시회가 동경 시모지마 포장센터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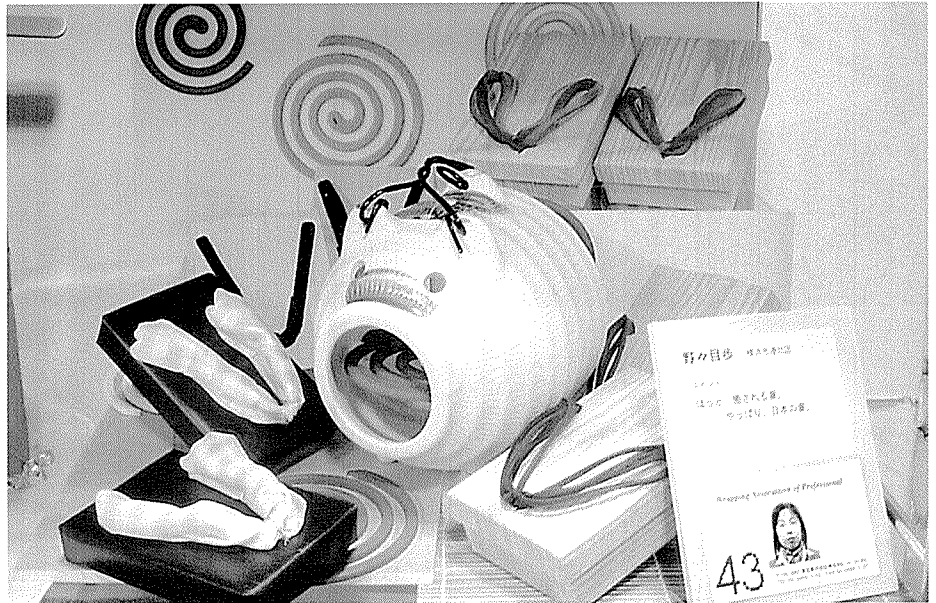
일본 랩핑협회는 제과 부문뿐만 아니라 각종 포장 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품 포장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단체로, 각 산업 분야의 마지막 마무리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포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마련해 활동 중에 있다.

일본에서 제과 부문의 포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이에 랩핑협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제과 부문의 전문 포장 전시회를 실시해 이번에 제7회 대회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회에는 총 45개 작품이 출품됐는데, 이 가운데 총 23개 작품이 처음으로 출전한 신인들의 작품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작품 전시는 포장 전문센터로 일본 전역에 분점을 개설하고 있는 시모지마(シモジマ)센터 중 아사쿠사에 위치한 5호관에서 이루어졌다. 시모지마센터는 전문 포장인 뿐만 아니라 포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자주 찾는 포장재 판매 장소로 이번 대회의 출품작들은 각 판매 매장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모두 전시됐다.

이번 대회 출품 작품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항은 신인들의 대거 출품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는 것. 기존의 상자를 위주로 한 상식적인 제과 관련 포장법을 탈피해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졌다. 특히 하나의 테마를 주제로 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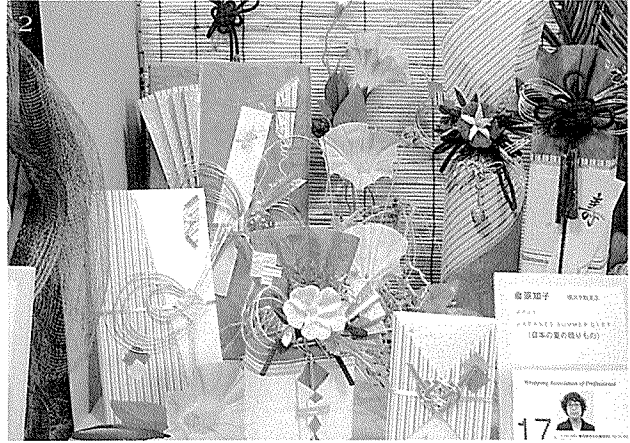
▲ 대회 대상인 랩핑협회 회장상을 수상한 野野目 歩씨의 작품.
상품 포장에 '게다' 모양의 이미지를 입혀 전통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 디스플레이까지 연출한 제품들이 다수 출품, 포장 분야가 보다 전문화되고 종합 예술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총 작품 가운데 영예의 1등인 대회 회장상 수상자는 요코하마(横浜)의 木村 由紀子씨로, 일본 전통 신발인 '게다'를 이미지화시켜 자연스러운 색감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시모지마 랩핑상, 디스플레이상, 인기상, 신인상 등 총 7개 작품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2,000여명의 포장 코디네이터를 배출한 일본 랩핑협회는 "제과제품이 선물용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욱 더 큰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포장 할 수 있다"며 일본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을 약속하며 대회를 마무리지었다.

〈정리 / 허미경 jpkyoung@mbakery.co.kr〉



- ① 시모지마 랩핑상을 수상한 木村 由紀子씨의 작품. 투명이나 밝은 톤의 포장지를 이용해 환한 느낌을 한껏 표현한 것이 특징.
- ② 시모지마 디스플레이상을 수상한 藤原 智子씨의 작품. 축의금 봉투를 포장하는 전통 풍습을 제품 포장에 접목시켰다.
- ③ 인기상 1위를 수상한 金井安紀子씨의 작품. '涼'라는 주제로 산뜻하고 시원스러운 포장 컨셉을 선보였다.
- ④ 인기상 2위를 수상한 須賀尚代의 작품. 찻잔, 유리 용기 등을 여름 분위기에 맞춰 포장했다.
- ⑤ 신인상 1위를 수상한 谷島紀子씨의 작품.
- ⑥ 신인상 2위를 수상한 北村由紀子씨의 작품.

